

이탈리아 극우 정당과 정치 갈등

김 종 법 (대전대학교)
(utikim@hanmail.net)



국문요약

본 논문은 현재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극우정당 현상의 지역 사례로서 이탈리아 극우정당을 분석하고 있다. 2022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탈리아형제당(FdI)과 멜로니(Meloni) 총리의 출범으로 100년만의 파시즘 체제의 귀환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탈리아 사례이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극우정당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1920년대 파시즘의 시대를 열기도 했던 이탈리아 극우의 역사와 실체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탈리아 극우정당 연구를 통해 현대 극우정당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살펴보고, 한국사회 시사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기원과 역사 속에서 이탈리아 극우 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던 5가지 요소를 설명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이탈리아 정치 상황과 정치 갈등이 초래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극우정당의 독특한 특징과 요인들을 정의하면서 이탈리아 극우 정당과 정치 갈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이탈리아,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당, 파시즘, 정치갈등

I.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등장 배경

2022년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유럽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00년만의 파시즘 귀환’이라거나 ‘100년만의 파시즘 정당 부활’이라는 수식어들이 난무하면서 이탈리아형제당(FdI; Fratelli d'Italia)의 집권에 여러 유럽 국가가 우려와 걱정을 표명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우경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극우 정당 강화와 정치권력 획득 가능성의 고조 현상이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여전히 강력한 좌파 정당과 중도적인 대중정당의 존재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극우 정당의 성격을 갖는 이탈리아형제당의 집권은 여러 측면에서 고민과 갈등 초래의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198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는 유럽 복지국가 전환과 노동시장 전환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전면적으로 시작된 계기였다. 특히 2008년 말 미국발 경제위기는 유럽통합에 균열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국가들의 내부적 사회경제 위기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EU로부터 불공정한 대우와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실행하였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이민과 난민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불거졌다. 게다가 2012년 이후 유럽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드러졌던 난민 처리와 불법 이민자 문제가 2015년 난민 할당제로 이어지면서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 심각한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였다. 이후 각 국가의 극우 정당과 극우적 성격의 사회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전면에서 등장하고 세력을 강화하면서 득세하게 되었다.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세력이 강화된 주요 원인이 이민자나 난민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제로 1989년 소련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 등으로 유럽 사회 전체가 전환기적 상황에 처하였다. 특히 유럽통합의 균열, 포퓰리즘의 등장으로 인한 균열 정치, 유럽 정체성의 파편화, SNS의 영향력, 지역주의와 극우주의의 편승이 가짜뉴스(Fake News)나 유튜브 등과 연관되어 다양한 극단주의 성향의 정치 집단이 모든 유럽 국가에서 등장하여 세력을 확산하였다. 더군다나 유럽에서 시작된 인터넷 정당의 발달과 진전이 극우 정당 확산 제고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반유럽통합과 난민 문제 이슈가 극우 정당이나 포퓰리즘 정당과 결합하면서 유럽 모든 국가에서 정치적 균열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탈리아 역시 이와 같은 유럽 전반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와 전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1994년 이후 지속되어 온 좌우 정당에 의한 연합정치의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더군다나 북부 분리주의 정당의 세력 확산을 시작으로 기성 정당을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극우 정당이 확산되었다. 다양한 지역색과 사회문화 환경의 독특함이 지배적인 이탈리아는 1861년 국가 통일 이전부터 정치·사회적으로 통합국가 혹은 단일국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탈리아 정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된 정치세력, 특히 2022년 집권하게 된 이탈리아형제당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상황과 특징들을 다음 기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기원과 역사를 극우 개념 형성의 바탕이 되는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1920년대 이탈리아 파시즘과 이탈리아영토회복운동 및 북부동맹과 같은 정당들까지 아우르는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역사와 기원을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 이탈리아라는 국가 정체성 균열을 불러온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2000년대 이후 이탈리아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기민당의 몰락 이후 이탈리아 좌파 정당들의 약화 등으로 인해 등장하게 된 새로운 정당들의 이념적 특징들을 포퓰리즘, 지역주의, 극우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이탈리아 사회갈등과 분열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셋째, 2022년 이탈리아형제당의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던 공약과 정책 등에 주목하면서 현재 극우 정당 집권을 정치 갈등과 균열로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이 다른 유럽 국가 사례와 다른 이탈리아만의 독특한 특징과 요인들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지 규명하면서 이탈리아 극우 정당과 정치 갈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기원과 역사

이탈리아에서 극우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탈리아 역사를 관통하는 사건들과 상황 및 인물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다의적인 극우 개념의 이해가 보다 쉬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이탈리아 역사를 종적으로 주요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모두 서술하는 것은 본 논문의 성격에 벗어난다. 여기서는 이탈리아 극우 개념의 다의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요소는 가톨릭이다. 어쩌서 가톨릭이 먼저 거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지와 시각에 따라 논쟁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탈리아 역사에서 가톨릭은 매우 부정적인 종교 세력이자 분파였다. 특히 가톨릭은 오랜 분열 국가였던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이었으며(마키아벨리 저/김종법 역 2024; Gramsci 1975; 김종법 2015; 김종법 외 2018), 1861년 통일 이후에도 세속적인 종교 권력 회복을

위해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권에 부여한 역사적 사례도 존재한다. 1929년 라테란 조약(Patti Lateranenesi)이라 불리는 무솔리니 정부와 교황 피오(Pio) 11세 간에 체결된 이 조약으로 통일 이후 바티칸에 유폐되었던 가톨릭이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 게다가 파시즘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세속적 권력을 보장받았다. 특히 초중고 교육 과정에 가톨릭 의식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파시즘 정권의 정당성과 가톨릭교회의 세속적 영향력을 교환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권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이탈리아를 지배할 수 있는 통치 정당성이 용인되었.(김종법 2006; 김종법 2012).

두 번째 요소는 근대 이탈리아 통일과 통일 이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었다. 1861년 근대 이탈리아가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탄생하였다.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 이탈리아통일운동) 이후 달성된 이탈리아 통일 국가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각하는 정치체였다.

리소르지멘토를 규정하는 해석은 해석의 주체와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두고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하나는 통일의 주역이었던 피에몬테 왕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주로 리소르지멘토를 통해 이탈리아가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 반도가 자본주의 체제 아래 국민국가 형성의 토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피에몬테 중심의 리소르지멘토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통일이 새로운 시작 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회문제와 이탈리아의 전근대성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계기였고, 아울러 르네상스의 이탈리아와 현대 이탈리아를 단절시키는 계기였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김종법 2012, 57).

세 번째 요소는 남부문제(problema mediterraneo)로 대표되는 지역문제이다(김종법 2006; 김종법 2004). 이탈리아는 수많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속어와 문화가 연계된 독특한 지역문화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통일을 추구했음에도 정치·사회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부족했던 것은 그러한 이유였다. 더군다나 통일 과정에서 보여준 피에몬테 왕국 중심의 외적 통합은 남부와 대중들이 바라던 통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게다가 통일 이후 피에몬테 왕국은 이탈리아 국가 체제 완성을 위하여 전통적인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에몬테의 제도와 기구들을 통치에 접목시키고 활용했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은 내부적으로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하였으며, 남부의 대부분 국민들은 피에몬테 왕국을 이탈리아 국가 지배체제로 인식하기보다 남부 착취와 통제를 위한 정치체로 인식하

게 되었다.

네 번째 요소는 무솔리니에 의해 시작된 이탈리아 파시즘(Fascism) 체제이다(김종법 2015; 김종법 외 2018). 1920년대 유럽을 파시즘 시대로 만든 독재자이자 선도 체제였던 무솔리니와 파시즘 체제는 전술한 특수한 상황을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은 후발 국가 이탈리아의 허약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연합국의 일원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이탈리아는 참전 여부를 두고 국가적인 논쟁이 있었다. 신생 국가로서 대규모의 자원과 물자가 필요한 세계대전에 참전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자 위험 상황이었다. 기존 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전쟁 준비도 제대로 못 한 채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를 견제하는 역할로 전쟁 발발 1년 후인 1915년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참전 결정이 문제가 아니었다. 오스트리아와 전선을 구축하고 교전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이탈리아가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동맹국의 주축 국가의 하나를 지역 전선에 묶어두는 전술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군사력이 군국주의 구축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전쟁이었다. 그런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음에도 오히려 이탈리아 영토 일부분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상실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흔히 이레덴티즘(Irredentismo)이라는 실지 영토 회복 운동이 이탈리아 전역에 확산하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이탈리아 극우 민족주의 운동 세력이 확산하였다(김종법 2008). 특히 피우메(Fiume)를 둘러싼 갈등은 이탈리아 극우 민족주의가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였으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국주의 국가 이탈리아의 실체에 실망한 이들이 파시즘으로 귀속되는 출발점이었다. 무솔리니의 등장과 파시즘 단체의 설립 배경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 정당의 부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파시즘의 출현과 체제 구축을 앞당기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북부분리주의 운동과 그 결사체인 북부동맹(Lega Nord)이라는 정당이다(정병기 2001; 김종법 2019). 이탈리아 지역주의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지역주의와 다소 다른 성격이 존재한다. 북부분리주의 운동은 이탈리아 지역주의 다양한 측면이 반영되어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다. 북부동맹이라는 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정당에서 출발하였지만, 2017년 이후 이탈리아 총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20% 이상의 득표율과 10% 내외의 의석수를 기록하면서 이탈리아의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북부동맹은 우파 정부가 출범하였던 총선에서 연정의 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2022년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당과 함께 연정의 주축으로 정착하였다. 북부동맹의 이념과 성향은 연구자나 전문가가 별로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수 우파 정당에서부터 인종차별에 기반한 극우적 성격의 정당까지 정체성 규정에 편차가 큰 정당이다. 이탈리아형제당과 함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으로 성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술한 5가지 요소 외에도 이탈리아에서 극우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수 존재한다.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통한 극우 활동이나 지역정당을 설립하기도 하며, 축구 등의 스포츠팀의 팬클럽 등의 활동을 통해 유사 극우 집단을 결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탈리아 문화나 예술 활동 등을 통해 극우 성향을 표방하는 등 여러 영역에서 극우적 경향의 단체와 결사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극우 정당 혹은 극우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려면 활동 배경과 과정에서의 여러 요인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하며, 분석 과정에서의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탈리아 극우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이탈리아형제당 분석을 통하여 이탈리아 극우의 현재를 규명하고 전망 등을 함께 서술하겠다.

Ⅲ. 21세기 이탈리아의 정치 갈등과 요인들 : 1994년 총선 이후 주요 선거와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과 같은 동맹국이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컸다. 하나는 무솔리니 파시즘 체제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존 유럽의 열강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수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전쟁 참가는 근대국가로서 그리고 강대국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이탈리아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러나 상처뿐인 승전국이나 패전 국가로 이탈리아를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과정에서 이탈리아는 북부의 노동자 중심의 좌파 정당들과 미국이 개입하여 내세운 기독교 정당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기민당 수권의 정치권력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고, 1992년 ‘마니폴리테(Mani Pulite; 깨끗한 손)’라는 부패한 정치자금 수사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탈리아 제1공화국은 유지되었다(김종법 2012; 김종법 2005; Paolo Ginsborg 1998; AA.VV. a cura di Gianfranco Pasquino 1994).

기민당과 사회당의 몰락과 해산은 기존 보수정당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당들과 이탈리아공산당의 후신인 진보 정당들과의 정치적 대립구조를 만들어냈다. 기존 체제와는 전혀

다른 선거제도와 정당구조로 인하여 정치·사회학자들은 이를 ‘이탈리아 제2공화국’이라 명명했다. 기존 정당을 대신한 좌우 구도와 신자유주의 정당의 등장 속에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첫 번째 선거가 1994년 총선이었다(김종법 2004; 정병기 2003). 기민당과 사회당의 몰락으로 좌파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이러한 정치 공백을 틈타 등장한 새로운 정치세력인 세 개의 정당이 선전하면서 1994년 총선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신흥 재벌기업가 출신의 베를루스코니(Berlusconi)가 이끄는 포르차 이탈리아(Forza Italia)당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신생 정당이었다. 기존 정당과는 다르게 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와 선거운동 등을 통하여 제1당(21.0% 득표)으로 등극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사회주의운동(MSI; Movimento Sociale Italiano)의 후신으로 신파시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족연합(AN; Alleanza Nazionale)당이 제3당(13.5%)이 되었다. 이 민족연합당이 2022년 제1당이 되어 집권하게 되는 이탈리아형제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베네토(Veneto) 주를 비롯한 북부의 특별 주들이 중심이 되어 이탈리아 북부 지역 분리를 표방하는 북부동맹(Lega Nord)당이 선전하였다. 북부동맹당은 신나치즘적 요소와 유럽통합을 반대하면서 8.5%를 득표하여 제5당이 되었다. 1994년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이 글의 중심축인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1994년 총선이 다소 과도기적인 정권 교체 시기였지만, 연금개혁법안을 두고 우파 연정의 한 축인 북부동맹이 이탈하면서 1995년 의회가 해산되고 1996년 총선이 치러졌다. 8개월 만에 심각한 베를루스코니 중심의 우파 연합에 맞서 실시된 1996년 총선은 전후 최초로 좌파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좌파 연합(올리브 연합)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좌파 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1994년 총선에 비해 민족연합(AN)은 2.2%가 증가한 15.7%를 득표하여 더욱 강력한 제3당이 되었다. 북부동맹 역시 10.1%를 득표하여 제4당으로 부상하였다. 1996년 총선은 우파, 특히 극우적 성향의 두 개 정당이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 극우 정당의 토대를 만들어준 총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후 최초의 좌파 연정은 2001년 총선에서 패배하였다. 유럽통합의 공고화 및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 수정 등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민은 반대 정당 연합을 선택하였다. 다시 한 번 베를루스코니는 민족 북부동맹의 주요 지도자들을 입당시키고, 자본 친화적인 정책 등을 통하여 북부동맹의 지지를 수렴하였다 또한 남부 지역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 문제 등의 해결을 약속하면서 민족연합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포르차 이탈리아 정당의 득표율(29.5%)은 민족연합 득표율 감소분 3.7%와

북부동맹 득표율 감소분 약 6%를 더한 득표율을 기록하여, 1996년 총선보다 향상된 세력 강화에 성공하였다. 2001년 총선에서 등장한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와 알바니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난민 문제가 이탈리아 국내 정치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으며, 이는 향후 극우 정당의 주요 정책 노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2001년 총선 이후 국내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된 이민자와 불법체류 노동자나 난민 문제는 모든 정당 공약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집권 가능성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느리지만 광범위하게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하였다. 프로디(Prodi)를 앞세운 좌파연합(L'Unione)은 0.1%p라는 이탈리아 선거 역사상 최소한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하여 원내 과반을 획득하였다. 베를루스코니가 중심이 된 우파연합이 패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남부와 청년들의 지지 저하였다. 젊은 세대의 높은 실업률, 북부와 남부 지역 간 격차 확대에 의한 남부의 경제적 상황 악화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선거였다. 다시 말해, 2006년 총선은 경제문제와 지역 격차 사안이 최대 정점으로 부상하였고, 이는 이어지는 총선에서 지속적으로 정당 선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도좌파연합의 두 번째 집권은 오래가지 않았다. 2년 만에 다시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세 번째로 집권하게 된 베를루스코니 중심의 우파 연정은 2006년 총선의 최대 이슈였던 경제와 청년 문제 해결의 대안 집권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결국 노동자와 청년들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특히 2008년 총선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상황 변화는 기존 총선에서 작동하던 이념의 문제가 희석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경제 회복 및 이민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는 2013년 총선과 2018년 총선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2013년 총선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좌우 연정을 성립시켰다. 2018년 총선에서는 오성운동당(Movimento 5 Stelle)이 제1당이 되면서 오성운동당과 북부동맹의 연정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김종범 2018a; 김종범 2019). 2013년 총선의 경우 표면적인 결과를 보면 좌파 연합이 승리하였음에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오성운동당이 제2당으로 선전했음에도 기성 정당과의 협력을 반대하면서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성운동당의 급격한 지지 상승세는 이탈리아 정치 지형을 이전과 다른 방향에서 변화시켰다. 특히 2013년 인터넷 정당 형태로 처음 참여한 총선에서 25.55%의 하원 득표율은 기록하였다. 이는 제1당에 근접한 득표율과 의석수였다. 이러한 당세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총선에서 32% 이상을 득표하면서 제1당으로 올라섰다는 사실 역시 오성운동당의 성공을 초래한 이탈리아 정치사회의 환경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

〈표1〉 오성운동당의 총선 득표율과 의석수(2013년 총선과 2018년 총선)

오성운동당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2013년 총선	하원	8,689,458	25.55	109		
	상원	7,285,850	23.79	54		
2018년 총선	하원	10,732,373	32.68	소선거구	비례	총의석수
				93	133	225
	상원	9,733,303	32.21	44	68	112

출처: 저자 정리

오성운동당과 극우 정당과의 관계와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정치 문화 요소의 변화와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술한 1994년 이후 총선에서 기성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하고 이탈리아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기성 정당의 몰락과 경제위기에 따른 침체의 장기화,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알바니아 사태와 오랜 중동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불법 이민자와 난민 문제 등이 이탈리아 국내 정치와 결합하면서 이념이나 관련 정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욱 복잡해진 정치 지형과 지지 정당의 전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총선이 2013년이었으며, 중도 대중영합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오성운동당이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여 제1당이 되었던 2018년 총선에서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오성운동당과 북부분리주의 정당인 북부동맹의 결합은 이탈리아 내부 문제 해결을 원했던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러한 한계는 극우 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시작된

〈표2〉 이탈리아 극우 정당 총선 선거 결과(2013년과 2018년 총선 결과)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북부동맹	2013년 총선	하원	1,390,156	4.08	18
		상원	1,328,555	4.33	18
	2018년 총선	하원	5,694,351	17.34	122
		상원	5,323,045	17.62	58
이탈리아 형제당	2013년 총선	하원	665,830	1.95	9
		상원	590,083	1.92	0
	2018년 총선	하원	1,435,114	4.37	31
		상원	1,286,887	4.26	16

자료: 이탈리아 내무부(<http://www.interno.gov.it/>) 자료 중에서 저자 정리

극우 정당의 집권 효과가 이탈리아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4년 총선에서 시작된 극우 정당들의 성장과 발전이 중도 포퓰리즘 정당의 실패와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2013년과 2018년 총선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을 <표2>에서 열거한 북부동맹과 이탈리아형제당이라는 두 정당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들 외에도 각 총선 때마다 수많은 소수 극우 정당이 등장했다. 이러한 극우 정당들의 부침 과정에서 드러난 이탈리아 내부 정치의 주요 이슈는 몇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동 분야, 둘째, 연금 제도, 셋째,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적인 지역 문제, 넷째, 이민과 불법 노동자 문제, 다섯째,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 처리 문제이다. 이 다섯 가지 영역 외에도 EU 통합에 대한 찬반 문제, 도시 간 경쟁 관계로 인한 반목과 대립이 있으며,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나 계층 간 대립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총선 때마다 정당 득표율로 반영되었고, 정책과 제도 선호에 따라 집권 정당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념과 정책 대결이라는 기초는 약화되었고, 개별 사안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우세해졌다. 그 결과, 정당 선택의 기준이 변화하면서 이념 정당에서 포퓰리즘 정당으로, 그리고 마침내 극우 정당으로 선택 기준이 넘어갔다. 2022년 총선이 그러한 전환 국면의 결정적인 표출이었다.

2022년 총선에서 사용된 “100년 만의 파시즘 정당 집권”이라는 표현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우발적이고 우연한 현상만은 아니었다. 1994년 총선 이후의 정치 변화와 집권당 교체는 이탈리아 사회 변화가 오랫동안 축적된 다양한 현상의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극우 정당의 집권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극우의 역사적 성장과 사회적 배경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다음 장에서는 100년 만에 집권하게 된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V. 이탈리아형제당의 집권과 극우 정당 집권 배경

2018년 총선 결과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오성운동당의 제1당 등극과 북부동맹과의 연정 구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질적인 정당 간 결합으로 이뤄진 연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콘테(Conte) 정부에 이어 draghi(Draghi) 정부의 안정성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 기간 가장 주목받은

정당이 바로 이탈리아형제당이였다.¹⁾ 201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세력을 강화했고, 오성운동당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탈리아형제당의 부상에는 2019년부터 시작된 국제정치·경제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미·중 신냉전의 악화, 브렉시트로 촉발된 유럽통합 위기, 미국과 이란의 대립 격화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 등이었다. 더군다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은 세계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국내 정치에도 불안정성과 침체를 가져왔다. 이러한 요인 속에서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우파 혹은 극우 정부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유럽의 보수 우경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가 되었다. 이탈리아 역시 2018년 오성운동당의 제1당 등극에 이어 2022년 총선에서 이탈리아형제당이라는 극우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이탈리아에서도 구체화된 결과였다.

그러나 단지 2019년 이후의 국제정치·경제 환경 변화만으로 이탈리아형제당이라는 극우 정당의 집권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탈리아 역사에서 1919년 전투파쇼 단체 결성 이후 1922년에 합법적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한 과정이 100년 만에 재현되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과 배경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2022년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집권하게 된 결과와 배경을, 앞서 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3〉 이탈리아 극우단체 유형 분류 및 주요 특징

No	유형 분류	주요 단체	특징
1	Music groups, labels, fanzines, and music portals (9 sites)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헤비메탈과 펑키 음악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스킨헤드 유형의 네트워크다. 이들은 음악을 통해 반외국인 정서를 확산시키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2	Italian Social Republic (ISR) nostalgics (13 sites):		이탈리아 파시즘의 전통을 지키고자 만든 네트워크 단체로, 1920년대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던 살로 공화국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파시스트 그룹과의 차이점은 정치 현안에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3	Skinhead groups		이 단체는 주로 음악이나 축구 등 스포츠를 통해

1) <https://www.fratelli-italia.it/> (검색일: 2025. 07. 02.).

No	유형 분류	주요 단체	특징
	(1 site):		나치즘, 파시즘, 그리고 반외국인 정서를 이미 지로 표출하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이민자를 통제하고, 이를 통해 질서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4	Revisionists and negationists (4 sites):		이 단체는 역사적으로 진행된 아픈 기억인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자행한 범죄를 역사와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증명하려 한다.
5	Cultural, traditionalist Catholics, new age and neo-mystical groups (10 sites):	Associazione storico-culturale ITALIA-RSI (Historical cultural Association Italy-ISR) (10 incoming links)	이 단체는 가톨릭 전통 아래 보수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톨릭 근본주의 유형이다. 낙태와 이혼에 반대하며,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교와의 공존을 반대한다. 또한 기존의 가톨릭 전통에 어긋나는 동성애 및 성전환자 등 모든 사회적 소수자 운동이나 현상에 반대한다.
6	Neo-nazis (1 site)		이 단체는 직접적으로 독일의 나치즘을 신봉한다. 히틀러를 신격화하고 나치의 상징을 사용하며, 아리안족의 인종적 순수성을 고양한다. 주로 예비역 군인들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7	Publishers, reviews, commercial sites selling books or merchandising (12 sites):	Carpe diem: periodico dell'associazione "il Cervo Bianco" (Carpe diem: newsmagazine of the association "the White Deer"), La legione, Nothus, Offensiva, Otto	이 단체는 출판, 인쇄, 언론 등을 통해 극우주의를 확산시키는 네트워크다. 몇몇 출판사들이 결합돼 있으며, 저서,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자신들의 극우주의를 대중적으로 퍼뜨린다.
8	Political parties or movements (10 sites):	AN, Lega Nord, Fiammma Tricolore, Fratelli d'Italia and so on.	이 그룹은 전형적인 이탈리아 극우정당 유형이다. 민족연합(AN), 북부동맹(Lega Nord), 삼색횃불당, 이탈리아형제당 등이 있다.
9	Militaria (5 sites):	Federazione Nazionale Combattenti della Repubblica Sociale Italiana (National Federation of Italian Social Republic's Veterans)	이 그룹은 주로 군인이나 군 관련 인사들이 군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쿠데타나 전쟁 등을 찬양하는 단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옹호하며 군복을 착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No	유형 분류	주요 단체	특징
10	National revolutionaries, nationalitarians, and communists (10 sites):	Aurora Mensile del Movimento Antagonista Sinistra Nazionale (Aurora Monthly Review of the Antagonist National Left Movement)	이들은 1960년대에 시작된 파시스트 운동으로 돌아가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파시스트들의 상징이었던 검은 셔츠나 제복을 입으며, 의회에서 해당 단체 소속임을 밝히는 의원이나 정치가들도 있다.
11	Others (2 sites):		그 외 위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타 단체들이 있다.

출처: 각각의 이탈리아 사이트에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저자 정리

이 단체들이 중요한 점은 각 극우 정당 지지 세력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11가지 유형의 단체에 대한 이해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단체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본부와 지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단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몇몇 유형과 단체들이 있다. 파시즘을 찬양하고 군국주의와 나치즘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많으며, 정책 측면에서는 이민자 정책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연계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당수 단체는 민족연합(AN), 북부동맹, 삼색햇불당, 이탈리아형제당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들과 연계돼 있거나, 상·하원 후보자를 양성하는 단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유형의 단체들은 이민 및 난민 관련 정책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협력·공조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지부와 하위 단체를 설립·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극우 정당과 연계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기존 보수 정당이나 중도 포퓰리즘 정당과 협력해 꾸준히 세력을 확산시켰다.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8년 총선이였다. 이탈리아형제당은 2018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오성운동당의 연정이 실패하자, 우파 포퓰리즘을 포용하고 극우 정당의 색채를 완화하며 2022년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했다. 이탈리아형제당은 민족연합(AN)을 계승하면서 삼색햇불당의 파시즘적 색채를 지우고, 중도 우파와 보수 지지층, 극우주의자들을 아우르는 포섭 전략을 추구해 2022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됐다.

〈표4〉 2022년 이탈리아 총선 결과(상하 양원)

정당 및 연합정당 명칭	하원					상원				
	비례	소선거구	VdA	해외	총계	비례	소선거구	VdA/TAA	해외	총계
이탈리아형제당(Fd'I)	69	49	-	1	119	34	31	-	-	65
동맹(LSP)	23	42	-	1	66	13	15	2	-	30
포르짜 이탈리아(FI)	22	23	-	-	45	9	8	1	-	18
온건주의자들(NM)	-	7	-	-	7	-	2	-	-	2
우파 연합의 총계	114	121	-	2	237	56	56	3	-	115
민주당 - 이탈리아 민주주의와 진보주의	57	8	-	4	69	31	4	2	3	40
녹색당과 좌파연합	11	1	-	-	12	3	1	-	-	4
+유럽	-	2	-	-	2	-	-	-	-	-
시민책무-중도민주주의	-	1	-	-	1	-	-	-	-	-
발레다오스타	-	-	1	-	1	-	-	-	-	-
좌파 연합의 총계	68	12	1	4	85	34	5	2	3	44
오성운동	41	10	-	1	52	23	5	-	-	28
행동 - 이탈리아 만세	21	-	-	-	21	9	-	-	-	9
SVP - PATT	1	2	-	-	3	-	-	2	-	2
북부를 소명한 남부	-	1	-	-	1	-	1	-	-	1
해외를 향한 이탈리아인들의 결사운동	-	-	-	1	1	-	-	-	1	1
총계	245	146	1	8	400	122	67	7	4	200

출처: <https://www.interno.gov.it/> (검색일: 2025. 07. 30.).

2022년 총선은 2018년에 비해 투표율이 약 10%p 하락한 63.9%를 기록해 투표 정당성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2018년 총선에서 약 4.3%의 득표율에 불과했던 소수 정당이 불과 4년 만에 2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당의 위치에 올랐고, 연정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집권당이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2022년 총선은 전후 처음으로 가을에 치러졌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요소로 주목을 받았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하 양원 의원 정수가 기존 945명에서 600명으로, 약 1/3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약 36% 줄었으며, 축소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둘째, 2017년 시행된 로자토(Rosato) 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었다(정병기 2018).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비례대표제와 혼합선거구제를 번갈아 채택해 왔는데, 2022년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다수 확보를 위한 보완이 이루어졌다. 하원 400명, 상원 200명으로 줄어든 의원 수를 반영해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셋째, 우파 연합의 주축인 동맹(Lega)당과 베를루스코니의 정당 포르차이탈리아(FI)가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각각 8%대)을 기록함으로써, 이탈리아형제당이 연정 상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극우 성향의 동맹당을 선택했다. 넷째, 총선 전 예상과 달리 오성운동당의 득표율이 약 15%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중도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정국 운영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2022년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당이 제1당이 되어 동맹당과 연정을 수립한 사실은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탈리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경제성장률은 8.9% 감소했고 42만 명의 노동자가 실직했으며, 국내총생산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2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이탈리아 정치·사회 내부에서 극우 경향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²⁾ 물론 지지자층과 지지 기반이 다른 두 극우 정당의 연정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특히 유럽 통합에 대한 인식이나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두 정당이 서로 다른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 정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극우 정당들이 지닌 이념적·정책적 편차와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극우 단체들 간의 차이만큼이나, 이탈리아 극우 정당들 역시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더 나아가 이탈리아 극우 정당의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이념과 노선 또한 연속성을 보인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이탈리아 극우 정당 세 곳의 이념과 노선을 비교하고, 이들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정책과 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갈등 영역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2) <https://www.istat.it/> (검색일: 2025. 07. 20.).

〈표5〉 이탈리아 극우 정당들의 주요 특징(2018년 총선 참여 정당 중심)

정당	이탈리아 형제당(Fd'I)	삼색햇불당(Movimento Sociale Fiamma Tricolore)/ 이탈리아와함께(Ncl)/	북부동맹(LN)
이념적 특징	삶의 정신적 비전과 가치 중시, 자유시장 체제에 사회적 경제를 도입,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진흥, 유럽통합의 근본주의 고양, 가족의 역할과 가치 재인식, 법치·질서·안전 중시, 전통적 정의 가치 준수,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 옹호, 새로운 유럽의 지향.	이탈리아 언어와 문화 정체성 확립, 강력한 민족국가 도모, 이탈리아 역사와 전통 보존, 가족 중심의 이탈리아 공동체 사회의 정통성 보호, 이탈리아의 주권 강조, 유럽 통합 방향의 근본주의 회귀 주장	분리독립주의, 연방주의, 반이민자정책, 인종차별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유럽통합회의주의와 유럽통합 반대
주요 지지자층	남부 농민, 파시즘 지지자들, 민족주의 계열의 보수주의자, 토지 소유자들, 주부들	민족주의 우파, 애국을 중시하는 국가주의자들, 극우 보수주의, 가톨릭 옹호론자들, 전통적인 보수주의 우파 지지자들	북부 자영업자, 북부 인종주의자, 북부 분리주의자, 전문직을 가진 중상 이상의 계층
이데올로기적 좌표	극우 보수주의	극우 민족주의, 민족 자본주의	극우 인종주의 및 지역주의
주요 제안 정책	공공의 인종주의 정책 표방, 반이민정책과 이민 동화주의 정책지지, 불법 이민자 정책 강화, 외국인 노동자 입국허가제 등	개방적 이민정책 반대, 이주노동자 입국과 허가 정책 엄격화 주장, 외국인 사회보장 수혜 금지, 금융 세계화 반대, 민족 자본주의 체제 강화	이민허가제, 반세계화 정책, 연방제, 유로사용 폐지,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

출처: 김종법(2018b, 73) 재정리 및 재인용

이탈리아 극우 정당들은 〈표 5〉에서 설명한 세 개 정당 외에도 지역(주로 주 단위)에 따라 수많은 극우 정당이 존재한다. 이는 이탈리아 특유의 행정 체계와 선거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들 극우 정당의 존재로 인해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어떤 분야에서, 또 얼마나 크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 활동하고 확산 중인 극우 정당 대부분은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외적으로는 이민과 난민 정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동일한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 분야이다. 1994년 총선은 이탈리아 노동계의 기반을 흔든 전환점이었다. 특히 신흥 기업 총수 출신인 베를루스코니의 등장은 굳건하던 이탈리아 노동시장을 재편하면서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이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기성세대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던 젊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발전했고, 흔히 말하는 '1,000유로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이러한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변화는 1993년 7월 새로운 '사회적 협약'이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켰다. 산별협약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가 활성화되었고, 지역과 기업에 따른 협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가 양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둘째, 연금제도 변화이다.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제도는 가장 첨예한 갈등 영역이다.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결국 대상자의 연금 수령액이나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이기에 제도 개혁 자체가 쉽지 않다. 1994년 총선에서 승리한 베를루스코니 연정이 8개월 만에 붕괴하고, 1996년 총선에서 야당 연합인 올리브동맹에 정권을 넘겨준 결정적 계기 역시 연금제도 개정이었다. 연금생활자의 대부분이 은퇴한 노령층이거나 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이 분야는 세대·직종·연령·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는 영역이다. 극우 정당들은 이러한 갈등을 총선 때마다 적절히 활용해 공약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이민 관련 법안과 제도이다. 이 분야에는 난민 처리, 국적 취득, 비자 발급 등 관련 법과 제도 적용이 포함된다. 이탈리아형제당과 동맹은 이 분야의 방향성과 제도 적용의 엄격성에서 매우 일치하는 입장을 보인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이민자 및 외국인 법이라고 평가받는 '보씨-피니(Bossi-Fini)법'은 2010년 2월 의회를 통과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김종법 2015). 외형상 이 법의 원칙과 제도 운영은 명확해 보이나, 문제는 이를 악용하면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2013년 시행 당시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넷째, 지역 격차와 주(州, 레지오네)의 지위 문제이다. 이탈리아는 북부·남부·중부로 구분되는 광역 차원의 지역 격차와 차별이 1861년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20개의 주가 특별주 5개와 일반주 15개로 나뉘어, 주별 자치 수준과 자율성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김종법 2006). 이는 국가 또는 민족 정체성 부여에 적지 않은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다섯째, 유럽통합에 대한 찬반이다. 이 문제를 극우 정당과 직접 연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국가주의와 보수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정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동맹과 같이 북부 독립이나 높은 자치권을 주장하는 정당과 지역의 경우, 유럽통합은 정치적 기반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인식된다. 극우 정당들은 이를 통합의 관점이 아니라 분리의 시각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영역을 들었지만, 이외에도 환경·기후·에너지 분야에서 극우 정당은 중도 보수나 진보 정당에 비해 비교적 극단적인 주장과 정책을 내세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2022년 총선 이후 이탈리아형제당이 동맹과 연정을 이어가는 현재까지도, 불안정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역대 다섯 번째 장수 내각이라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³⁾ 다만 두 당의 정책과 노선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과 대EU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연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 예산 운영 방침에 따르면 2024년 GDP 대비 7.2%였던 예산 적자율을 2026년까지 3%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비교해도 무디스 등으로부터 신용등급 안정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경제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탈리아 GDP는 0.7% 성장했고, 2025년도 플러스 성장이 기대된다. 동상이몽의 목표 속에서 이들 두 극우 정당 연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한 갈등과 붕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

이탈리아 극우 정당과 정치 갈등의 정치적 함의

2022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이탈리아형제당과 동맹의 연정이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집권을 이어 나가자, 전문가들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놀라움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좌우 연정이 번갈아 집권하던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정이 극우 정당 집권으로 정치적 안정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EU의 제3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탈리아형제당의 극우적 성향이나 정책 기조가 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여전히 이민이나 난민 문제 등에서 극우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권이나 외국인 문제 등에서도 이탈리아 민족주의에 기반한 극우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내부적인 불만 요소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폐쇄적인 이탈리아 내부 입장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20년대 무솔리니가 파시즘 정권 초기 내부 불만을

3)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8162100109> (검색일: 2025. 07. 20.).

외부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고 했던 방향과 유사하다. 실제로 이탈리아형제당 이후 이민과 난민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자국민 우선주의와 이방인 배제주의 기조는 강고하게 지키고 있다.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정치·사회 구조를 유지해 왔다. 더군다나 이민과 지역문제 등 고질적인 사회 갈등 요소가 만연한 국가이다. 지정학적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불법 난민과 이주자가 가장 가깝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이므로, 언제든지 사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파시스트 정당의 후예로 평가받는 이탈리아형제당이나 북부 분리주의를 주창하며 인종주의를 지지하는 동맹당이 안정적으로 집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과 변수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변동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1920년대 이탈리아와 같이 노동자와 사회주의 정당으로 인해 발생한 정치·사회 갈등이나 사회주의 혁명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기성 정당을 대체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이탈리아 정당 발전 과정을 보면, 좌우 정당 대결 구조에서 대중연합주의 정당의 득세, 그리고 극우 정당의 집권이라는 변화들은 이후 정치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이탈리아의 정치 지형과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특성상 극우 정당의 지속 가능성은 높다. 특히 이민과 난민 유입에 최적화된 지정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극우 정당이 소멸하거나 해체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행정 체계상 존재하는 5개 특별주의 존재로 인해 통합 국가로서의 이탈리아나 민족·국가 기반의 일원화된 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다. 결국 남부 문제나 북부 분리주의뿐만 아니라 내부 지역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문제를 기반으로 한 유사 극우 정당 활동이 끊임없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셋째, 이탈리아 극우 정당은 가톨릭과 깊게 연계된 종교 기반 정당이 아니다. 1929년 라테란 협정으로 가톨릭이 파시즘에 부여한 전례가 있지만, 현대 이탈리아 정치·사회에서 가톨릭은 보수 집단으로서 국민의 정신문화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전후 기민당 집권 과정이나 현재에도 가톨릭 기반 보수 정당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극우 정당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도이지만, 이탈리아를 가톨릭 국가로 분류하지 않는다. 모든 정당이 가톨릭의 가치를 존중하고 협력을 중시하지만, 극우 정당의 일부 가치에는 가톨릭이 동조하지 않는다. 특히 이민·난민 정책에서 바티칸과 극우 정당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멜로니의 이탈리아형제당 역시 바티칸의 입장을 존중한다.

넷째, 현재 유지되는 두 극우 정당 연정은 대외 위기와 정치적으로 선택 가능한 협력

정당의 부재라는 조건으로 결합된 것이다. 당분간 연정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중산층에 대한 세금 보조 유보와 기업 법인세 인하 유보 등 민감한 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연정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탈리아 극우 정당과 정치 갈등의 양상은 한국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 이들 극우 정당의 정책·노선·이념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가치와 목표가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도 존재한다. 특히 동맹의 경우, 초기 북부동맹 활동 시기에 북부 독립 국가 건립을 목표로 행정수도를 지정하고 청사를 건립했으며, 독자적인 경찰 조직과 방위군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탈리아라는 민주공화국에서 극우 정당이 반체제·반민주 정당으로 처벌되거나 해산된 적은 없다. 이는 이 정당들이 옳다거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극우 정당의 정치 활동과 이념·가치·신념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민주주의는 국가 내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극우 단체와 정당의 출현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상황과 비교하면 분명한 시사점이 있다. 종교를 앞세우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한국 극우 단체들의 비민주적·반체제적 행태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극우·극좌와 같은 극단주의가 일상화되거나 상식처럼 통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생각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통제하는 것 또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극우 정당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극우 개념이나 적용 기준·원칙이 전혀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극우 정당이 제시하는 이념과 노선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 보수나 우파의 노선으로 환치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극우 단체나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가 민주주의와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한국의 극우 논쟁에 의미 있는 준거점과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 김종법. 2003. 이탈리아 남부문제와 그람쉬. 인문과학연구 4, 51-69.
- 김종법a. 2004. 하부정치문화요소를 통해 본 베를루스꼬니 정부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8(5), 417-434.
- 김종법b. 2004. 이탈리아 남부문제의 역사—카부르에서 니띠까지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이탈리아어문학 14, 59-86.
- 김종법. 2005. 이탈리아 마니벨리떼의 사회적·정치적 의미. 세계지역연구논총 23(1), 117-136.
- 김종법a. 2006. 이탈리아 남부문제에 대한 정치사상적 기원: 치꼬띠에서 그람쉬까지. 세계지역 연구논총 24(2), 74-101.
- 김종법b. 2006. 변화와 분열의 기로에 선 이탈리아: 2006 이탈리아 총선. 국제정치논총 46(4), 268-288.
- 김종법c. 2006. 과시즘의 기반으로서 젠틸레의 정치사상-힘의 철학과 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 18, 39~62.
- 김종법. 2008. 이탈리아의 이레덴즈모의 역사. 김승렬 외. 유럽영토 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역사재단.
- 김종법. 2009. 2008년 이탈리아와 한국의 총선비교—정치문화와 투표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11(1), 1-27.
- 김종법. 2012. 현대 이탈리아의 정치사회-굴절과 미완성의 역사와 문화. 바오출판사.
- 김종법. 2015. 이탈리아 사회통합정책과 극우정당 : 보씨-피니 협약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8(1), 71-102.
- 김종법. 2015. 그람쉬와 한국의 지배계급 분석. 바다출판사.
- 김종법·임동현. 2018. 이탈리아역사 :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 김종법a. 2018. 과거의 소환, 극우의 부활, 미래의 정치: 2018 이탈리아 총선과 기억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58(4), 45-73.
- 김종법b. 2018. 이탈리아 민족주의: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 민족연구 71, 56-77.
- 김종법. 2019.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을 통해 본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 유럽연구 37(2), 147-171.

- 마키아벨리 저/김종범 역. 2024. 군주론. 아르테.
- 정병기. 2000. 이탈리아 정치적 지역주의의 생성과 북부동맹당 Lega Nord의 변천. 한국정치학회보 34(4), 397-419.
- 정병기a. 2003. 이탈리아 정치사회변동과 중도-좌파정부(1996~2001)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6(3), 219-239.
- 정병기b. 2003. 정치 변동과 정당 특성 분석을 통해 본 진진이탈리아(Forza Italia)의 성공 요인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12(1), 91-111.
- 정병기. 2006. 2006년 이탈리아 총선: 중도-좌파의 승리 요인과 정당체제의 변화. 진보평론 통권 26, 188-209.
- 정병기. 2018. 2018년 이탈리아 총선과 포퓰리즘 연정 출범. 진보평론 76, 192-201.
- AA.VV. a cura di Gianfranco Pasquino, 2001. La politica italiana. Dizionario critico 1945~95, Laterza.
- Chabod, F. 1951. La politica estera italiana dal 1870 al 1890. Laterza.
- Giorgio, Brosio. 1996. Il sistema del Governo locale in Italia, in Il Governo locale. Il Mulino.
- Gramsci. 1975. Quaderni del carcere. Einaudi.
- C. Guarnieri. 1993. Magistratura e politica in Italia, Il Mulino.
- Mantelli, B. 1994. La nascita del fascismo. Fenice.
- Paolo Ginsborg. 1998. L'Italia del tempo presente, Einaudi.
- Salvatorelli, L. 1969. Sommario della storia d'Italia, Einaudi.
- Sandona, A. 1932. L'irredentismo nelle lotte politiche e nelle contese diplomatiche italo-austriache. Zanichelli.

● 투고일: 2025.07.31. ● 심사일: 2025.08.04. ● 게재확정일: 2025.08.17.

| Abstract |

Italian Far-right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Conflicts

Kim Jongbub (Daejeo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Italy's far-right political parties as a case study of the far-right phenomenon that is currently gaining prominence worldwide. Italy drew global attention when the Brothers of Italy (Fratelli d'Italia, FdI) won the 2022 general election and Giorgia Meloni became Prime Minister, an event widely perceived as marking the return of a fascist regime after a century. Among European countries, Italy has the longest history of far-right parties, being the birthplace of fascism in the 1920s. The history and nature of Italy's far-right politics also carry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This study uses the case of Italy's far-right parties to examine the diversity of contemporary far-right movements. To this end, the paper comprises four chapters. First, it examines the origins and history of Italy's far-right parties, focusing on five key elements that defined the concept of the Italian far right. Second, it analyzes the various factors that undermined Italy's national identity and explores the political situation and conflicts since the 2000s. Third, it investigates whether the current far-right rule can be interpreted solely in terms of political conflict and division. Fourth, it aims to define the uniquely Italian characteristics of the far right and explain the country's far-right parties and political conflicts in light of these elements.

<Key words> Italy, Far-right Party, Italian Brothers Party(FdI), Fascism, Political Conflict.